

[초EP-01] 2009 세계 천문의 해 : 최종보고

문홍규¹, 채종철², 이명현³, 이희원⁴, 정현수¹, 김웅태², 이경숙^{1*}, 이서구¹, 이동주¹,
홍대길⁵, 이강환⁶, 김천휘⁷, 민영철¹, 이경숙^{1**}, 현성경¹, 김지혜¹, 윤선혜¹, 강영운⁴,
양종만⁸, 박석재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서울대학교, ³연세대학교, ⁴세종대학교, ⁵(주) 싸이유, ⁶국립과천과학관,
⁷충북대학교, ⁸이화여자대학교,

2009 세계 천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Astronomy 2009, IYA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지난 1년간 148개 참가국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IYA2009 활동은 강연, 별 축제와 같은 고전적인 이벤트로부터 시, 수필, 에세이, 음악, 미술, 만화, 영화, 대회, 인터넷 생중계, 플래시 동영상과 같이 새롭게 시도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획, 운영되었다. 또한 우리는 시민천문대와 과학관, 미술관은 물론, 지하철, 기차역, 시청, 놀이공원, 쇼펍몰, 백화점, 병원, 그리고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전시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회와 동영상 상영을 시도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90여 종의 행사를 410여 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총 11,700,000여 명의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2009 세계 천문의 해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YA2009는 강연 200여 회, 전시 80여 회, 공연 15회, 학회 7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공식책자 4종, 도록 3종이 발간되었다. 관련 보도자료는 40 차례 배포했으며, 그 결과 2,500여 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총 248편의 연재기사가 실렸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공식 웹진 '이야진' 접속자는 999,890명, 총 페이지 뷰 건수는 131,963,473을 기록했다.

*이경숙 :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실

**이경숙 :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구EP-02] 천문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전시물 개발

이강환², 하상현^{1,2}, 백창현³, 손정주⁴

¹국립과천과학관, ²충북대학교, ³교육과학기술부, ⁴한국교원대학교

현재 국내에는 약 30여 개의 천문관련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3개의 시설이 추가로 건설 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은 천체투영관과 천체망원경을 중심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천문관련 전시물을 포함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천문관련 전시는 대부분 형식적인 설명패널이나 단순한 원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천문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 천문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쉽게 전달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물 개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대구·광주과학관의 천문관련 전시물 제작에 이용될 예정이다.